
산과 나무, 풍경 속의 시인들

—오세영의 「구룡사 시편」, 이성선의 「나무 안의절」—

김현자 · 문학평론가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시와 선(禪), 구도의 시 쓰기

서정시는 짧은 언어 속에 많은 것을 켜켜이 담아 전달한다. 이때의 짧다는 의미는 시의 물리적인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번잡함과 잡다함을 정제하고 다시 배치하여 압축한다는 의미에서, 시는 짧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서정시를 읽으며 그 의미를 반추한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사를 잠시 접고 시의 울림에 전이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을 통해 독자는 스스로를 고취시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선(禪)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아와 세계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시간과 공간을 통합시키는 정신적 활동은 말 없는 행위, 묵언을 통해 많은 것을 전한다. 그런 면에서 선적인 취향을 띠는 서정시는 화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시 속 풍경을 통해 독자에게 의식적 깨달음을 전한다. 여백의 아름다움 속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다. 번잡한 욕망의 공간을 훌쩍 넘어 구도의 공간으로 다가가는 행위, 상승에 대한 희구는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는 깊고도 내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학은 초월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선이 말 없음과 신적 세계로 넘어가는, 완전한 초월에 가깝다고 할 때, 선적 취향의 시는 초월과 상승, 구도를 드러내되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의미와 삶의 자세를 반추하게 하는 독서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오세영 시인과 이성선 시인은 이러한 상승과 초월의 시 쓰기를 선시적인 요소를 통해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영 시인은 자연의 풍경을 사유의 배경으로 삼는 「구룡사 시편」을 통해 생과 사라는 절대적인 논리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지적인 깨달음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성선 시인은 나무와 별, 달과 시를 통해 맑고 투명한 사물에 대한 애정과 상승 지향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몸은 지상에 묶여도』, 『별이 비치는 지붕』, 『별까지 가면 된다』 등의 시집은 제목을 통해서도 시인이 지상보다는 천상의 존재에 뜻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한다. 독자는 두 시인들의 시에서 시간과 공간의 통합과 정서적 합일감을 느끼며 구도(求道)적 자세를 맛보게 된다. 이러한 독서 체험은 마음 속을 정갈하게 씻어내고 내면을 치유하며 속(俗)에서 성(聖)으로, 그리고 다시 일상의 속(俗)으로 이동하는 정서적 고양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닦는 구도와 성숙의 체험을 제공한다 하겠다.

2. 산을 건너는 시인의 마음

한 철을 치악에서 보냈더니라.
 눈 덮힌 뿔부리를 치어다 보며
 그리운 이 생각 앓고 살았더니라.
 빈 가지에 홀로 앉아
 하늘 문 엿보는 산까치같이.

한 철을 구룡에서 보냈더니라.
대웅전 추녀 끝을 치어다보며
미운 이 생각 앓고 살았더니라.
흰 구름 서너 짐 머리에 이고
바람길 엿보는 風磬같이,

그렇게 한 철을 보냈더니라.
이마에 찬 산그늘 품고,
가슴에 찬 산자락 품고
산 드림 속 눈 트는 겨울 한 철을
깨어진 기와처럼 살았더니라.

— 「속구룡사시편」 전문

오세영 시인은 일상과 철학, 관념과 사물 사이를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은유와 환유의 기법으로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화자의 목소리 안에서 죽음, 영원 같은 철학적 명제들을 일상의 사물에 비유하며 효과적으로 육화시킨다. 이 육화된 논리를 통해 독자는 모순투성이인 삶을 뚫고 나가는 긍정적인 힘을 읽어내게 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일상의 번다함을 “치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맑고 고즈넉한 치악에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 풍경은 “하늘 문 엿보는 산 까치”, “바람길 엿보는 風磬”과 “깨어진 기와”로 은유화된다. 빈 가지에 홀로 앉아 하늘 문을 엿보는 “산까치”와 바람결에 흩어져버리는 “풍경” 소리, “깨어진 기와”는 모두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 부서져가는 질그릇처럼 소멸의 운명 앞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겨울 한 철을” 이렇게 죽음을 앞둔 대상들처럼 살아냄으로써 시인은 삶과 죽음의 우주적 운행 속에 자신을 던져 넣는다. 그리고 이로써 그리운 이, 미운 이에 대한 생각으로 번다했던 소아(小我)의 내면은 우주적 질서와 공명하는 대아(大我)의 청정한 내면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겨울 한 철”과 “구룡사”는 번뇌로 가득한 시인의 마음이 정화되는 통과 제의적 시·공간인 것이다.

한겨울에 “산 두릅 속눈이 트”듯 죽음은 생명을 잉태한다. 이때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문턱이 된다. 이 시가 이렇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문지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세영의 시가 선시적이되 완전한 초월의 경지로 넘어가버린 종교적 범문(法文)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시 「지상의 양식」에서 “너희가 꿈꾸는 양식은 이 지상에만 있을 뿐이다. 새여, 모순의 새여”라고 외치는 시인의 목소리를 떠올려 볼 때, 궁극적으로 지상의 양식을 구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세속적 삶과 시적 세계 양편에 두루 스며 있음을 알게 한다. 한없이 가라앉게 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는 번다한 현실 속에서 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기 안에 침잠해버린 세속인들의 영혼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오세영 시의 독특한 ‘영원’의 관념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절구(絶句)를 풀어놓기에 이른다.

산자락 덮고 잔들
산이겠느냐,
산그늘 지고 산들
산이겠느냐,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는가

— 「구룡사시편-겨울노래」 중에서

선문답을 연상시키는 이 시의 어법은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서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오세영 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산자락 덮고 잔들/산이겠느냐,/산그늘 지고 산들/산이겠느냐.” 그러나 또한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는가.” 선(禪)의 경지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현실의 논리를 불러들이는 이 양가적(兩價的) 목소리에서 우리는 음미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시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3. 나무와 절, 풍경 속의 시인

나무야
너는 하나의 절이다.
네 안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
비 갠 후
물속 네 그림자를 바라보면
거꾸로 서서 또 한 세계를 열어놓고
가고 있는 너에게서
꽃 피는 소리 들린다.
나비 날아가는 소리 들린다.
새 알 낳는 고통이 비친다.
네 가지에 피어난 구름꽃
별꽃 뜯어 먹으며 노니는
물고기들
떨리는 우주의 속삭임
네 안에서 나는 듣는다.
산이 걸어가는 소리
너를 보며 나는 또 본다
물속을 거꾸로
염불 외고 가는 한 스님 모습.

- 「나무 안의 절」 전문

한 편의 시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음을 본다. 위의 시에서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특징은 식물인 나무에 인격을 부여하여 “나무야”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첫 행이다. 나무를 “너”라고 부름으로써 시인은 나무와 화자의 거리감을 무너뜨린다. 식물인 나무와 인간인 화자가 동일화되는 것이다.

시인은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가 품은 도(道)를 절[寺]로 은유한다. 절

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도를 추구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수양하는 곳이다. 그곳에 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간 자체가 성(聖)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무 자체를 절로 비유하는 시인의 시선은, 사시사철 나무가 보여 주는 모습에서 도를 읽어내는 자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무의 사철 풍경은 어떠한가. 나무에 깃든 새들이 쪼아 대는 소리로 인해 나무에게서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자기 몸이 쪼이는 고통 속에서도 나무는 자신의 몸을 새들이 머물 공간으로 내어준다. 또한, 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하지 않고 맞으며 젖어드는 나무 앞에서 시인은 새로운 풍경을 열어 보인다. “물속 네 그림자를 바라보면/거꾸로 서서 또한 세계를 열어놓고”에서 볼 수 있듯, 나무 앞에 물웅덩이가 있었는지 혹은 나무 앞에 연못이 있었는지 나무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수직적인 양극이 하나의 풍경 속에 겹치게 되는 것이다. “구름꽃”과 “별꽃”을 뜯어 먹는 “물고기들”에서 나무의 가지가 뿌리가 물그림자 속에 겹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구름과 별, 밤과 낮, 계절과 시간이 나무의 물그림자 안에서 시인의 상상력 아래 통합된다.

실제로 나무는 뿌리가 땅에 고정되어 있지만 하늘을 향해 줄기와 가지를 뻗는다는 점에서 상승 지향적인 인간의 운명과 유사한 상징체로 활용되곤 한다. 시인은 “떨리는 우주의 속삭임”을, “산이 걸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죽음과 삶을 재현하는 신화적인 우주수(宇宙樹)의 이미지를 시속에서 변용하는 것이다. 다른 점이라면 우주수의 거대하고 위엄 있는 모습 대신, 작은 새와 나비를 키우는 한 그루 나무의 친근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인의 동일화된 시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염불 외고 가는 스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스님”은 나무의 의인화이자 시인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나무가 물그림자에 자신의 반신을 비추듯, 시인 역시 세속의 욕망을 뛰어넘어 고요하고 평안한 초월의 경지에 다다르고픈 마음을 드러낸다. 이는 완전히 속(俗)

된 세상을 버릴 수 없음을, 이곳에 남아 그곳으로 가는 “스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확인된다. 선(禪)이 너머의 공간으로 가는 것에 반해, 시는 너머의 공간을 바라보되 그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가고 싶지만 가지 않는, 혹은 갈 수 없는 생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오히려 초월과 상승에 대한 욕구를 미학적으로 그려내는 원동력이 된다.

밤에 내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여
시(詩)여, 어두운 동굴이여
밤마다 너의 이마를 건너는 나의 마음이
두렵고 두려워서 피리를 분다.

- 「거울」 전문

물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시인의 눈은 다시 “영혼을 비치는 거울”을 바라본다. 스님이 어두운 물그림자 안에 들어가듯, “어두운 동굴”에서 시가 태어나게 된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탐구자로서의 시인의 자세이지만, 어두운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자 완전히는 갈 수 없는 세계이다. 잠깐 다녀와 미지(未知)를 언어화하는 마음을 “밤마다 너의 이마를 건너는 나의 마음”이라고 시인은 노래한다. 완전히 구도의 세계, 선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갈망을 노래하는 것. 초월을 지향하되 이 땅에 남아 마음을 닦아 맑은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시인의 역할이자 글쓰기의 역할일 것이며, 글로써 닦는 도(道)일 것이다.